

1.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그 예를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다.

- ① (㉠) - 짓다, 푸다, 눕다
 ② (㉡) - 깨닫다, 춥다, 찢다
 ③ (㉢) - 푸르다, 하다, 노르다
 ④ (㉣) - 좋다, 과랴다, 부엌다

2. 준말의 표기가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되었다 - 뒀다
 ㄴ. 쓰이어 - 쓰여
 ㄷ. 띄이어 - 띄어
 ㄹ. 적지 않은 - 적잖은
 ㅁ.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3.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① 죽음을 단절과 상실의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②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하여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화하였다.
 ④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4. 현대 한국어의 양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ㅁ’ 등이 있다.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ㄷ. ‘ㅁ’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
 ㄹ.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판소리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춘향가>를 공연한다고 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광대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앉은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이따금 ㉠ “얼씨구” 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몽룡이 춘향이를 업고 ㉡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절로 흥이 일었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로 변장하여 ㉢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잔치에 모인 벼슬아치들이 ㉣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내는 것을 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판소리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 | |
|-------|----|-----|-----|
| ㉠ | ㉡ | ㉢ | ㉣ |
| ① 추임새 | 소리 | 발림 | 아니리 |
| ② 너름새 | 더듬 | 발림 | 아니리 |
| ③ 너름새 | 더듬 | 아니리 | 발림 |
| ④ 추임새 | 소리 | 아니리 | 발림 |

6. 밑줄 친 부사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7. 표준 발음법 상 ‘ㄹ’의 발음이 동일한 것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상견례, 의견란, 백리
 ② 임진란, 공권력, 광한루
 ③ 대관령, 입원료, 협력
 ④ 동원령, 구근류, 난로

8.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

(나) 동풍이 건든부니 물결이 고이닌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동호를 도라보며 서호로 가자스라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압뵈히 디나가고 뵈뵈히 나아온다

- ① (가), (나) 모두 어부(漁夫)가 지은 노래이다.
- ②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 ④ (나)는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9. 밑줄 친 단어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했다.
-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10.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문 Dongnimmun, 광화문 Gwanghwamun
- ② 선릉 Seolleung, 정릉 Jeongneung
- ③ 신문로 Sinmunno, 율곡로 Yulgongro
- ④ 한라산 Hallasan, 백두산 Baekdusan

11.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잘못된 사람이 되려 큰소리를 친다.
- ②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놀기만 하니?
- ③ 어제 일을 벌써 강그리 잊어버렸다.
- ④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억수로 흘렸다.

12.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 ② 할아버지께 여쭙위 보시면 됩니다.
- ③ 라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어라.
- ④ 내 처지가 너무 설위서 눈물만 나온다.

13.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의 역사가 입증하였을 때,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야 이것이 충분히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 ①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
- ②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
- ③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
- ④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설화적 상상 속에서는 경험적 현실에서 생각도 못할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 사람이 단숨에 수천 리를 가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며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왕자가 한순간에 개구리가 되며 한 사람이 열 명, 백 명으로 나뉘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적 형상을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는 힘찬 운동을 하게 된다. 사고의 반경이 부쩍 넓어지고 사유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로부터 인간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 나간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이런 인지적 운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해도 좋다. 틀을 깨는 자유와 역동의 상상적 인지를 통해서 말이다.

- ① 형상(形象)
- ② 반경(半徑)
- ③ 사유(思惟)
- ④ 지경(至境)

15. ‘의존명사 - 조사’의 짝이 아닌 것은?

- ① [할 만큼 했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너만 와라.
-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16.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울하 울하 아련 비울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흐니 여흘도 도흐니.

ㄴ.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ㄷ.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덕 족족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하노라.

ㄹ.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찬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흔 들빛만 싹고 빈 비 저어 오노라.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ㄷ - ㄹ
- ③ ㄱ - ㄴ - ㄹ - ㄷ
- ④ ㄴ - ㄱ - ㄹ - ㄷ

17. 국어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18.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때의 사회적 합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는 대개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거시적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을(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 | | | | |
|------|----|------|----|
| ㉠ | ㉡ | ㉠ | ㉡ |
| ① 문제 | 합의 | ② 갈등 | 성과 |
| ③ 갈등 | 의제 | ④ 의제 | 문제 |

19.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빠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사이다.
-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20.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의미상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미봉책(彌縫策)
- ② 임기응변(臨機應變)
- ③ 임시방편(臨時方便)
- ④ 언 발에 오줌 누기